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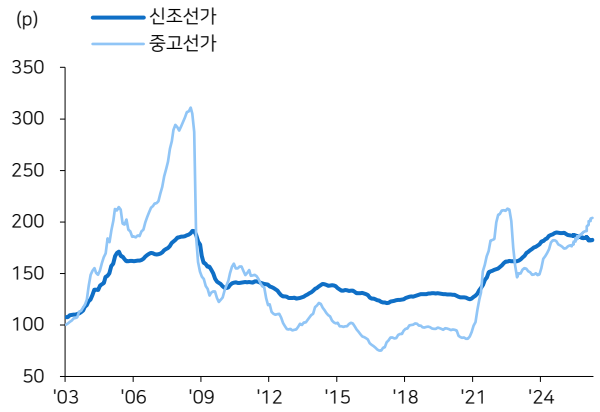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17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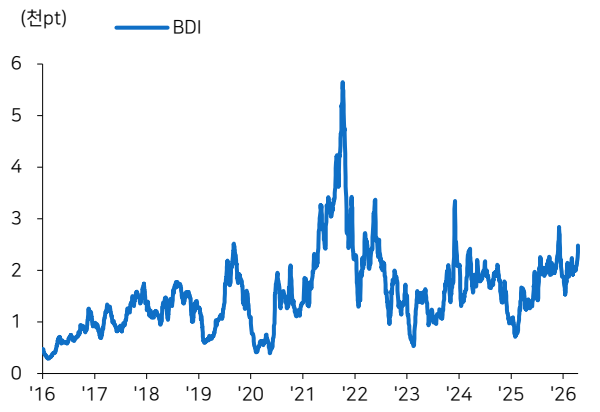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6p (+0.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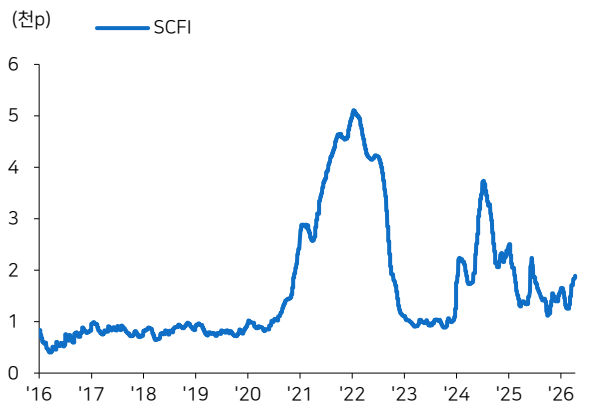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7.0달러 (+4.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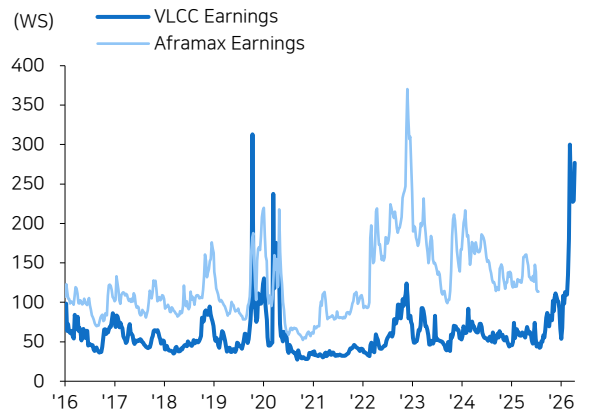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484.0p (+13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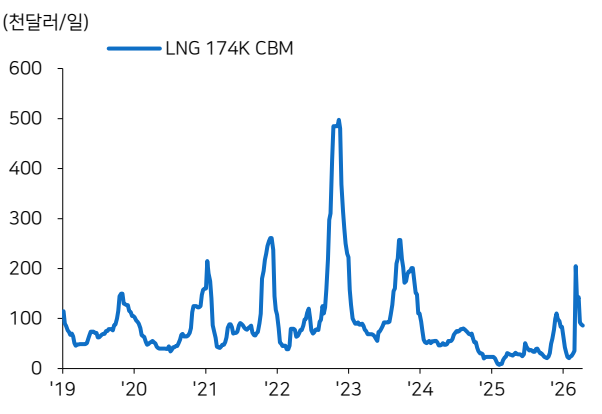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90.0p (+35.8p WoW)



VLCC Spot Rate 276.9WS (+47.8p WoW)



LNG Spot 운임 86.0천달러 (-2.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美조선소 GD NASSCO 경영진 삼성중공업 방문…전략적 협업 강화 (연합뉴스) https://zrr.kr/ZeYj78

미국 GD NASSCO 경영진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 수주 및 건조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됨. 양사는 NGLS 프로젝트의 개념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에서의 협력은 물론, 삼성중공업의 디지털 트윈 기반 로봇 용접 기술 등 최신 자동화 솔루션을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해짐. 최성안 부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양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단순 선박 설계를 넘어 로봇전환(RX) 기술 수출을 통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이 대통령, 19~24 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조선·방산 등 협력 논의 (뉴시스) https://zrr.kr/8kirsh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보도됨.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하며,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이라고 알려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한 · 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불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 · 해양, 금융, AI,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전망이라고 전해짐.

Turkey's Botas floats tender for LNG carrier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PwDPob

터키 국영 에너지 기업 Botas가 자국 최초의 LNG 운반선 직접 소유를 위해 174,000cbm급 신조선 2척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보도됨. Botas는 이번 입찰에서 최근 5년 내 150,000cbm급 이상의 LNG선을 5척 이상 건조한 실적이 있는 한국 조선소로 참여 자격을 제한했으며, 이는 향후 터키의 LNG 수입 확대 전략에 맞춰 선단 규모를 대폭 확장하려는 사전 단계로 전해짐.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1억 6,000만㎥인 일일 재기화 용량을 2년 내 2억㎥까지 늘려 가스 수요의 절반을 LNG로 충당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이를 위해 신규 FSRU 도입과 터미널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짐.

Turkish energy major ramps up VLGC drive with newbuilding order (TradeWinds) https://zrr.kr/j6PqHl

터키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Aygaz가 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와 총 3,466억 원(약 2억 3,400만 달러) 규모의 VLGC 2척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Aygaz가 올해 초 HD현대삼호에 93,000cbm급 이중연료 VLGC 1척을 발주하며 대형 가스선 시장에 진출한 이후 내린 전략적 결정으로, 신규 발주된 선박들은 2028년 4분기와 2029년 2분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Aygaz는 이번 투자를 통해 LPG 거래 및 운송 분야의 공급망 가치를 높이고 함대 현대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이달 들어 그리스 OceanGold로부터의 수주 등 VLGC 시장에서 견고한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알려짐.

US threatens dark fleet hunt with pursuit of Iran-linked ships in the Pacific (TradeWinds) https://zrr.kr/Xbu5IT

미국 덴 케인 합참의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태평양 등 전 세계 해역에서 이란 국기 게양선 및 이란을 지원하는 '다크 플릿(Dark Fleet)' 선박에 대한 강제 차단과 압류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됨.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안 봉쇄 사흘째를 맞아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 군사 당국은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검문하고 불응 시 무력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실제로 지난 15일 반다르아바스항을 출항한 이란 화물선이 미 구축함에 의해 회항 조치되었다고 전해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발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시아와 유럽 등 실질적 수혜국들의 공동 방어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알려짐.

Greek owners urge IMO to rethink net zero plan ahead of crucial meeting (TradeWinds) https://zrr.kr/bpJeai

그리스 선주협회(UGS)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이 비현실적이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탈탄소화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됨. 멜리나 트라블로스 UGS 회장은 해당 초안이 전 세계 선복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소세 등 직접적인 수익 징수 기제에 반대하는 미국과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전해짐. 특히 오는 4월 27일부터 열리는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4)를 앞두고, UGS는 규제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인 결단을 요청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